

중계 유효기간 초과 금지 방안, 농림부에 건의

● 불이행 종계장에 대한 행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

현재 육계의 생산성 향상과 자질개량을 촉진코자 닭 검정기준을 농림부 고시 제2002-26(2002. 5. 25)로 제정하여 종계의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나, 국내 종계의 약 50% 정도가 강제환우를 통해 종계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병아리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질병전파, 품질 및 생산성 저하, 병아리수급 차질 초래 등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어 양계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에 본회에서는 종계 유효기간 초과를 금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불이행 종계장에 대한 행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 등을 골자로 하는 종계 유효기간 초과 금지방안을 작성, 지난 11월 26일 농림부에 건의했다.

그리고 종계분양정보 공개, 분양되는 모든 종계에 대한 등록 의무화 및 등록된 종계에 대한 유효기간 관리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이행할 경우 종란 및 병아리의 품질향상으로 생산성 제고와 국제 경쟁력 제고로 수출촉진 및 수입억제, 수급과 가격안정으로 육계산업발전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본회에서는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종란 및 병아리를 생산하지 않는 것은 물론 종계장에서 종계유효기간을 초과(강제환우 등)하여 생산하는 종란 및 병아리는 구매하지 않기로 결의 선언하고 이를 2003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살모넬라(추백리 티푸스) 방역대책 방안 건의

● 국가방역차원에서 별도의 방역대책 수립해야

국내에서 사육되는 종계(원종계 포함)의 상당수가 살모넬라에 감염되어 육계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육계 사육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살모넬라에 대한 검색 및 도태 등 방역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나 그 실적이 극히 미흡한 상태다.

이에 본회는 살모넬라 감염에 의한 육계의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0월 25일 국가방역차원에서 별도의 살모넬라 방역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했다.

현재 살모넬라 검색은 비용 및 인력의 과다소요로 형식적인 검색이 이루어지고, 감염계의 도태지연 또는 기피현상으로 감염이 만연되어 국제경쟁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닭고기 수입량이 매년 증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방역차원에서 별도의 살모넬라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 사육되는 종계의 전수 검색 실시를 통해 감염 종계에 대해서는 100% 살처분 보상금 지급과, 추백리 및 티푸스 검색비용 전액 지원, 양성률이 1% 이상 확인된 종계장 계군의 전수 도태시 도태보상금 지급 등 현행 추백리 방역실시요령 및 살처분 보상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관계기관 및 단체, 업체 등의 전문가를 주축으로 하는 살모넬라 박멸사업단 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에서도 종계 사육농가에 대한 자체 검색과 종계도태를 위해 회원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일본 닭고기 수입 Byer, 본회 회원사 방문

● 닭고기 생산 시설 견학

대일 닭고기 수출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일본 유수 수입유통 바이어와 육계 전문가 등 14명이 한국을 방문, 본회 회원사인 (주)하림, (주)마니커, (주)체리부로의 계육가공공장을 시찰했다.

일본 닭고기 수입 바이어 대부분은 우리나라는 질병방역과 식품안전성 등 위생관리실태가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이번 국내 계육가공공장 시찰을 통해 일본 닭고기 수입 바이어로 하여금 우리 계육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험케 함으로써 우리가 안전하고 신선한 닭고기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번 시찰에서 초청팀은 11월 5일 경북 상주 소재 (주)하림 상주 계육가공장과 충북 진천 소재 (주)체리부로 계육가공장을, 11월 6일에는 경기도 동두천 소재 (주)마니커 계육가공장을 방문하여 닭고기 생산시설을 견학했다.

이번 일본 닭고기 수입 바이어의 국내 계육산업 현장 시찰은 일본시장에서 한국산 닭고기의 인지도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산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계육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

살모넬라 방역대책 관련 간담회 가저

● 살모넬라 발생현황 설명 및 개선방안 논의

본회는 지난 11월 19일 농림부 및 검역원 관계관과 본회 회원사 실무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살모넬라 방역대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육계산업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손꼽히는 살모넬라 발생 현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근본적인 대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종계, 육계, 산란계 등 모든 계군에 걸쳐 광범위하게 살모넬라가 만연된 상태이나 경영자의 살모넬라 근절 의지가 부족한 가운데 살모넬라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 질병만연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하고, 검색에 따른 인력 부족과 과다비용 및 시간, 스트레스 등으로 검색을 기피하고 있어 문제점이 더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인기관의 검색확인 제도가 미흡하고, 검사시약과 검사방법도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본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감염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국가방역차원에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종계장을 중심으로 추백리 티푸스 방역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추백리 방역실시요령을 전면 보완하여 현실에 부적합한 부분을 개정토록 해야 할 것이며, 농장주가 살모넬라 발생 사실을 은폐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확인검사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감염예방을 위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우수종계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자조활동자금설치를 위한 관련단체 협의회

● 공동자조활동자금 설치를 위한 협의

지난 11월 14일부로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2월 2일 본회 회의실에서 자조활동자금 설치를 위한 관련단체 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계산물 공동자조활동자금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단체간 자조활동자금 조성방법에 이견이 있어 차후 시간을 가지고 공동자조활동자금 설치방법을 모색키로 했다.

본회는 동법을 시행할 경우 막대한 인력과 비용,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원만한 시행이 가능하도록 선발 축산단체의 시행과정을 눈여겨 보면서 미비점을 보완한 후 육계사육 농가로부터 필요성과 호응이 있을 때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거출금 조성은 동법 제6조1항에 의거 내년도에는 우선 현행대로 계열주체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임의 자조활동자금을 설치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양계협회와 농협중앙회는 동법이 육계사육농가로부터 의무적으로 자조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과 취지이므로 동법 제6조2항에 의거 의무자조활동자금으로 거출금을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도계장내 부분육 생산 허용토록 관련 법령 개정안 제출

● 변화하는 다양한 닭고기 수요추세에 부응

최근 닭고기 유통형태가 통닭 유통에서 부분육 유통으로 변화하고 있어 도계장에서의 발골, 분할 시설이 요망되는 가운데 본회는 지난 11월 16일 도계장내 발골정형실을 설비하여 부분육을 생산,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농림부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도계장 시설기준에 영업자가 필요한 경우 도계장내 발골정형실을 작업실과 구획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처리방법에는 부분육을 도계장내에서 생산하여 포장 유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변화하는 다양한 닭고기 수요추세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계 체중을 2.5~3.0kg으로 크게 생산하는 것에 대비한 꼭 필요한 사항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003년도 다이어리 발간

● 본회 회원사 및 계약사육농가에게 배부



본회에서는 2003년도 다이어리 3,000부를 제작 발간하여 본회 회원사 및 계약사육농가에게 배부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판형을 변형하여 수첩형식의 실속형 다이어리로 제작, 계열주체 및 사육농가들의 업무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이어리가 추가로 필요하신 회원사는 본회(031-707-5722)로 연락하면 된다.

제8차 계열생산책임자 회의 개최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해설 및 사육농가에게 교육 홍보

본회는 12월 6일 계열생산책임자 회의를 열고 각 회원사 생산책임자에게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내용을 교육 설명했다.

또한 사육농가에게도 본 법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육계사육 농가에서 거출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조활동자금을 설치할 것인





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임의 자조활동자금으로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각 회원사별 계약사육농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가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본회는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책자를 제작하여 전 계열사육농가에게 배부했다.

닭고기 군납 확대 요청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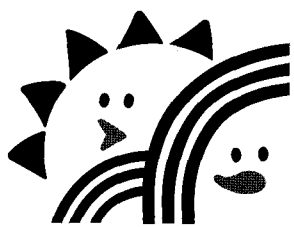
● 육계 사육농가 및 계열화 사업체의 경영상 어려움 다소나마 해결코자

최근 육계 및 계육업계는 닭고기의 과잉생산 및 소비감소, 수입증가로 인해 육계 산지가격이 생 산비(kg당 1,100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거래가격(kg당 500~600원)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육계 계열화 사업체 및 육계 사육농가들의 연이은 파산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회는 육계 사육농가 및 계열화 사업체의 이러한 현실을 감안, 닭고기 군납을 확대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닭고기 군납 확대에 관한 건의서를 작성하여 12월 11일 국방부에 제출했다. C

닭고기 · 오리고기의 품질을 말하는 이름



치키 더키

Chicky Ducky



(주) 화인코리아

www.finekorea.co.kr

TEL:061-331-8383 FAX:061-331-8387